두란노서원에서의 바울의 사역

본문: 사도행전 19:8-10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 본받아야할 큰 교훈이 된다. 나는 이와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산절히 소망한다.

1.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바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전도했다, 에베소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 했다고 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강론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세력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 했다. 그러나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 나라의 모습은 계시록 21:9-14절에서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 성도들 대표하는 12사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의 연합으로 대표 되는 24장로들의 온전한 연합과 조화가 계시록 4장에 나온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죄이다. 죄는 my way고 구원은 God's way라고 한다. 오늘 날에도 바른 복음이 선포 되면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왜냐 하면 그 복음은 자기의 길(MY way)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God's Way)를 따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자기의 길(My Way)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God's Way)를 따를 때 온 것이다. 오늘 날에도 이와 같은 바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문제는 바른 복음을 전해 준사람이 없어 복음에 목말라 한 영혼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2.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바울

바울은 복음을 듣기를 거절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날마다 말씀을 강론 했다. 두란노 서원은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이었다고 한다. 오전 서늘할 때는 강의를 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 정도는 더워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빌려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어떻든 거기에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세히 증거했다, 여기서도 그 복음을 전했음에 틀림이 없다. 두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해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3)악귀도 나가더라

말씀 가르친 역사야 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옛날에 대학생 전도사역을 할 때 하루에 일대일 팀 5팀까지도 공부한 일이었다. 어떤 분은 7팀까지 한 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 역사를 감당할 때 전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던가를 회상한다,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다.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당시 바울은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자신도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자기와 동료들의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쉬는 그 때 열심히 성경을 가

르쳤다. 바울은 건강한 편도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키도 외소하고 눈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생활비 벌기 위하여 일하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을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더워서 일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그당시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었을텐데.

그 이유는 첫째 그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다.
빌립보서 3:7-8
7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린바 되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있고 귀중한 보배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사도행전 4:11-12).
.
둘째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그의 비전이요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비전이 불탄 사람은 그 어떤 악 조건도 방해 할 수 없다. 사도행전 20:23-24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권력, 부, 명예, 건강등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개 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 우라를 탐욕의 늪으로 빠져 들게 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문화의 풍요의 시대에 육신은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질식할 것 같은 고통중에 있다. 이처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살길은 말씀을 가르친 일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